

“지역경제 위해 동네서점서 책 사세요”

책방넷 'Buy Book+Buy Local' 캠페인
김탁환·김연수·나희덕 작가 등 홍보대사
숨·소년의 서 등 광주·전남 11곳 참여
“내년에는 동네책방 중심 지도 제작 예정”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는 2021년까지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Buy Book+Buy Local'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진은 동네책방 숨. (동네책방 숨 제공)

지역의 문화사랑방이자, 지역 독자들이 특색 있는 책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동네서점이다. 또한 작가와 문화 예술인들이 독자와 만나고, 공간이기도 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형화, 규모화 등 자본주의적 가치가 확대되면서 동네책방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로인해 동네서점을 매개로 전개되는 생태, 약자, 소수자 등과 같은 공공적 가치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로컬푸드 운동처럼, 동네서점을 통해 책을 구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바이 북 + 바이 로컬' 캠페인이 진행돼 눈길을 끈다.

전국 90여개 소규모 서점으로 구성된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책방넷·대표 정병규)가 진행하는 'Buy Book+Buy Local' 캠페인이 그것. 오는 2021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동네 책방을 통한 책 및 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책방넷은 동네책방 위기 상황에 공감한 동네책방이 참여해 지난 2018년 결성된 모임(비영리법인)으로 현재 90여 개의 동네책방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Buy Book+Buy Local'이 내건 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견을, 동네책방 가는 길'이다.

이번 캠페인에 광주전남은 모두 11곳의 작은책방이 동참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동네책방 숨을 비롯해, 지음책방, 사이시옷, 러브앤프릭, 소년의 서, 예지책방이 가입돼 있으며 전남에서는 순천의 책방심다, 도그책방, 책방사진관, 서성이다와 목포의 풍당풍당이 참여하고 있다.

책방넷 부회장을 맡고 있는 동네책방 숨(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74번길 11-8) 이진숙 대표는 “2021년에는 전국 동네책방을 중심으로 동네지도 제작도 할 예정”이라며 “책방을 찾는 독자들이 이웃 작은 가게들로 안내해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도를 들고 책방골목을 여행하는 이들의 유튜브 영상 공모도 계획하고 있다”며 “향후 제작될 책방지도들은 동네책



김탁환 작가



나희덕 시인

방들의 릴레이 전시로 독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까운 동네책방에는 정성껏 고른 좋은 책이 늘 함께 한다. 이번 캠페인 표어와 함께 캠페인을 홍보하는 글귀도 눈에 띈다.

“어느 날 책을 사고 싶다면 가까운 동네책방에서 책을 구입하세요. 동네책방에서 책을 사면 먼 거리 운송비와 포장비, 이동비가 줄어들고, 책을 사랑하는 이웃 책방 주인장과 즐거운 수다를 나눌 수 있으며 책을 사랑하는 이가 정성껏 선택한 책들을 직접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정병규 책방넷 대표는 “앞으로 2년간 펼쳐지는 캠페인에는 김탁환·이병률·김연수 작가와 나희덕 시인 등 13명의 작가가 '동네책방 홍보대사'로 동네서점을 방문, 홍보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문인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들도 참여한다. 박정민 배우, 김중석 그래픽작가, 이미경 화가, 이금이 작가, 김복인 음악가, 소윤경 그래픽작가,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서현 그림 책작가 등도 동네책방 활성화에 팔을 걷었다.

책방넷은 캠페인에 드는 자금을 마련하고 동네책방들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텀블벅 후원 프로그램(20일~3월 6일)도 마련했다. 일정액을 기부하는 텀블벅 후원자는 각자 선정한 ‘단책 책방’에서 매월 그림의 홍보대사 글로 제작된 특별 아트 포스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말에는 모든 작가들의 글과 그림이 실린 아트북을 받게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취재차 외국의 도시들을 둘러 볼때면 눈여겨 보는 곳들이 있다. 미술관이나 도서관이다. 미술관이 그 도시의 미적 안목을 엿볼 수 있다면 도서관은 지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머리가 회색회색한 시니어들이 전시장을 찬찬히 둘러 보는 풍경과 어린이 열람실에서 자녀와 함께 책을 읽는 젊은 엄마들의 모습이 보기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특히 쾌적하고 세련된 시설을 갖춘 도서관을 방문 할 때면 잠깐이라도 현자인 처럼 책을 읽으며 삶의 여유를 누리고 싶어진다. 얼마 전 들른 국립세종도서관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지난 2013년 세종정부청사의 공무원들을 위한 국내 최

해 로비 중앙에서도 시야가 확 트인다. 특히 이층의 동선을 최대한 배려한 설계가 돋보인다. 여타 도서관은 각종 안목이 단절되는 구조인데 반해 세종도서관은 유리벽을 두거나 어른 키 높이의 유리 펜스를 설치해 아래층에서 위층을, 위층에서 아래층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조광권이 가장 좋은 건물 4층에 들어선 식당은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복합문화공간을 떠올리게 한다. 통유리를 통해 펼쳐지는 호수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은 5성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가 부럽지 않다. 최근 광주시가 오랫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대표도서관의 설계작이 윤곽을

‘명작의 탄생’을 기다리며

초의 정적도서관으로 문을 열었지만 시민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식놀이터'로 각광을 받고 있었다. 우선, 세종도서관은 삭막한 행정수도 어울리지(?) 않는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아름다운 세종호수공원을 배경으로 자리한 도서관은 마치 책장을 펼쳐 놓은 듯한 외관이 인상적이다. 건물 중심부는 움푹 들어간 반면 양쪽 가장자리는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하늘로 솟은 날개모양이다. 지난 2011년 총공사비 1015억 원을 들여 2년간의 공정을 거쳐 지하2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1076㎡ 규모로 건립됐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를 맡은 건축 디자인은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이란 타이틀을 얻으며 세종시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실제로 도서관에 들어서면 근사한 콘서트홀에 와 있는 듯하다. 주변의 자연경관을 실내에서도 조망할 수 있게 4층 건물의 모든 벽면을 통유리로 마감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 지평동 옛 소각장터에 들어설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제건축설계공모에서 세르비아 출신 브라니슬라프 레딕의 작품이 134개 경쟁작들을 제치고 당선작으로 채택됐다. 당선작은 지표면 아래 공간과 소극장을 연결하는 브릿지(다리)를 다양한 기능이 담긴 공간으로 연출한다는 컨셉으로, 오는 2022년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지휘한 함인선 광주 서초대 총괄 건축가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표도서관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광주의 이정표적인 과업"이라며 "재생과 문화에 방점을 둔 광주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생생하게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의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의 '슈퍼리움(Spielraum·놀이와 공간을 뜻하는 독일어)이 될 명작의 탄생을 기대한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아시아문화전당 레지던시 참여자 다음달 10일까지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이 ACC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ACC_R' 참여자를 모집한다. 'ACC_R'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작품 제작, 연구 교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총 6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했다. 지난 2017년 영국 발틱 현대미술센터의 '올해의 예술가'로 선정된 쉐신, 2018년 독일 '기아 헤르츠 어워드' 수상을 한 조태복과 정진희 작가 등이 거쳐 갔다. 올해 공모에선 처음으로 주제를 설정해 2개 분야(아시아 문화연구자, 창작자) 5개 프로그램(Fellow, Theater, Creators, Dialogue, Design)의 국내외 전문가를 선발한다. '생명사랑(biophilia)'을 중심에 두고 약 6개

월 간 프로그램에 참여할 아트앤테크놀로지 창작자, 학술연구자, 디자이너 등이다. '평화'와 '인권'까지 포함한 주제로 공연을 제작하는 공연예술창작자와 '아시아의 의식주, 축제와 의례 종교와 문명' 등에 관심 있는 아시아문화연구자도 뽑는다. ACC는 선정된 참여자들에게 숙소와 작업 공간, 창작활동비, 프로젝트비 등을 지원한다. 아시아문화연구자는 경력에 따라 최대 247만원(월)의 연구활동비를, 기타 창작자에게는 매월 80만원 창작활동비와 700~1500만원 프로젝트비를 각각 지급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오는 3월 25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화 '삼거리 양복점' 라가치상 오페라 프리마 부문 수상

우리나라 동화 '삼거리 양복점'이 올해 불로냐 라가치상 오페라 프리마(신인상) 부문에서 우수상 격인 '스페셜 멘션'을 받았다고 18일 도서출판 웅진주니어가 전했다. 라가치상은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출간된 아동 도서 중 창작성, 교육적 가치, 예술 디자인이 가장 뛰어난 책을 선정해 준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아 '어린이 책 노벨상'으로 불린다. 웅진주니어에서 출간한 삼거리 양복점은 2014년과 2017년 불로냐 국제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뽑힌 안재선의 작품이다. 3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온 가족의 성장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통해 노동의 아름다움과 장인 정신의 송고함을 말한다. /연합뉴스

도서출판 '달소' 우수시집 발간 공모

동주문학상과 지리산문학상 수상 시인의 작품을 발간하는 도서 출판 '달소' (달을쏘다)가 독창적이며 작품성 뛰어난 우수시집 발간 공모를 한다. 원고는 시집 한 권 분량으로 약 60편 내외의 작품이면 된다. 원고 마감은 수시 응모 중이며 공모 희망자는 작품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응모된 원고는 '달을쏘다' 기획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발간 여

부를 개별통보하며, 타 출판사에 접수가 되지 않은 원고에 한한다. 출판시 선인세 100만원이 지급되며 판매용 전자책도 제작된다. 발간된 시집은 기간 시한에 광고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저자 요청 시 사인회 개최도 추진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김동일쉐프

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입구 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굴정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형
☎ 062)228-1975, 010-9622-8938

유가네한우곰탕 광주대인점

동구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곰탕의맛!
한우맑은곰탕,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설렁탕
한우육수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배달가능
직접전화및배달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동양철학원

동구불로동 11-2(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광명천막기업

북구 전변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점문길8 (나주터미널빌)
미세먼지 걱정특!!
☎ 061)333-4514, 010-3620-7268

남약장레식장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오양병원 1층
최신시설 완벽 친절·신용·분위
각종정례용품 접기제공
☎ 061)285-0444

연아불교용품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 (영산포구역전앞)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양초 판매
☎ 061)334-0088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향촌

서구상무화원로 32번길 29-3(차평동)
한우, 생삼겹살,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계육볶음, 김치찌개, 냉면
시골떡국 단계순남회향
☎ 062)371-0583, 010-3947-0005

우영생기원

동구 독립로 282-10(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치료,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액, 명당, 철학, 작명, 궁합, 택일, 도인양생
각분야 개인지도
☎ 062)236-2655, 010-3646-2977

황금세차장(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원에서 효천1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 062)652-4564

자동차뱃데리 할인마트

북구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 062)252-1119, 010-9881-2922

천을귀인

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산수동)
궁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 010-7186-6894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평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 062)511-3388

三代(삼대)원조 나주곰탕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14(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가능 단계환영
☎ 061)287-3229, 010-3602-0297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차평동 세정아울렛정문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희중 ☎ 062)224-486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